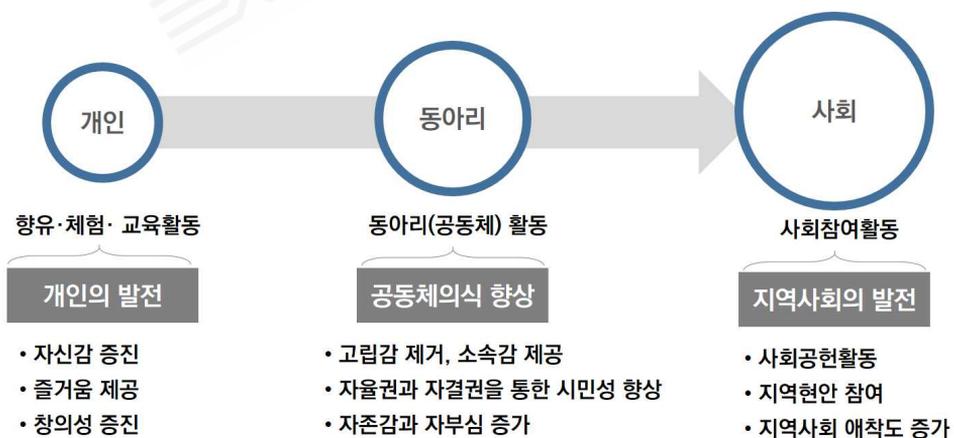


요약

자생기반 강화·활동환경 조성 등 3대 축으로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해야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개인보다 문화 재생산 차원에서 접근 필요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에서 시민을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적극적 문화생산자로 인식하는 생활문화정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정책의 주요 초점 중 하나가 동아리 활성화이다. 서울시민의 문화예술동아리 참여율이 2008년 2.6%에서 2014년 5.8%로 증가하였으며, 서울 문화재단 패널리스트의 동아리 참여욕구가 49%에 이르는 등 시민의 동아리 활동 참여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삶의 행복감을 높이고 공동체의식을 확대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제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나 사회적 관계 수준이 OECD 국가들 중에 거의 최하위 수준임을 생각하면,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는 개인활동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 재생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생활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는 자연히 전문예술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연결되어 예술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창의문화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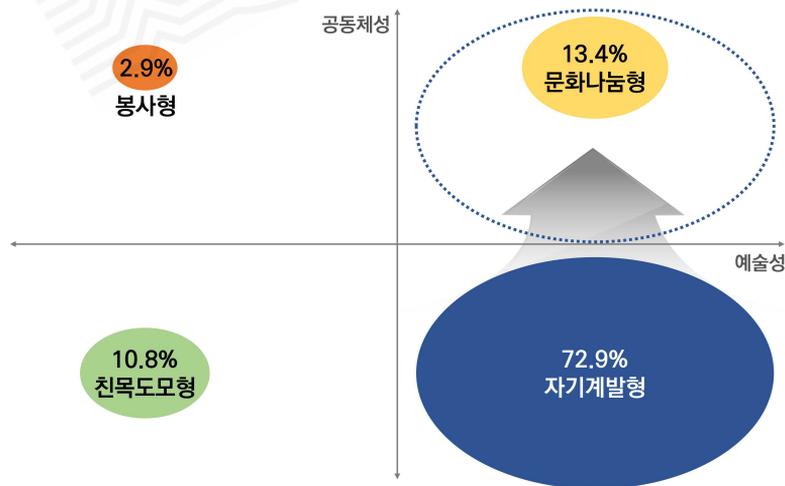


[그림 1]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참여의 효과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자기계발형 압도적... 문화나눔형 지향경향

생활문화예술의 속성인 예술성과 지역공동체성을 기준으로 동아리 활동 유형을 나눠보면, 예술성(학습, 발표)과 공동체성(교류, 사회공헌) 지향 여부에 따라 문화나눔형, 자기계발형, 친목도모형, 봉사형 등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문화나눔형은 예술적 관심이 높고 예술이 사회참여의 형태로 발현되는 유형이며, 자기계발형은 예술을 통한 자기성취욕구가 높으나 취미공동체로 머무르는 특성이 있다. 친목도모형은 예술적 관심이 친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봉사형은 예술적 관심이 낮으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형이다.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경우 학습과 발표활동 중심의 '자기계발형'이 72.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문화예술학습과 발표욕구가 높고 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성취감 고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다. 그런데 동아리 참여자의 설문조사 결과, 자기계발형에 해당하는 동아리들이 사회공헌 활동 욕구가 높은 문화나눔형을 지향하는 경향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즉, 사회공헌 활동 활발도가 2.39점에 불과한 자기계발형에서 사회공헌 활동 의지가 4.1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다(5점 만점 기준). 이러한 욕구는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다른 동아리들과의 교류활동에 대한 욕구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류활동이 성장의 계기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유형

생활문화예술동아리에 사회공헌 관련 정보·연결 플랫폼 제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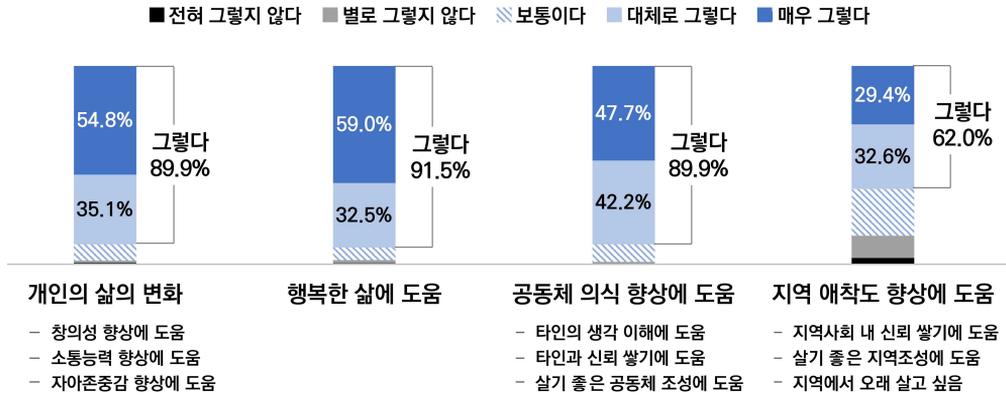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사회공헌 활동과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활동별 장애요인을 통해 알 수 있다. 사회공헌 활동 장애요인으로는 ‘활동시간대가 맞지 않음(1순위)’, ‘방법 및 장소에 대한 정보부족(2순위)’, ‘비용부담(3순위)’으로 나타났고, 네트워크 활동 장애요인은 ‘만날 기회 부족(1순위)’, ‘비용부담(2순위)’, ‘시간적 여유 없음(3순위)’으로 나타났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사회공헌과 네트워크 활동은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방법은 사회공헌과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성을 가진 동아리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정보와 연결 플랫폼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활동 계기를 마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동아리활동 참여자 대부분 “개인발전·공동체의식 향상에 도움 된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188명의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개인의 발전 및 공동체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개인의 창의성’, ‘소통능력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9.9%를 차지했으며,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역시 91.5%로 매우 높다. 또한 공동체의식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타인의 생각이해’, ‘타인과 신뢰 쌓기’,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9.9%를 차지하였다. 다만 ‘지역애착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고(1순위)’, ‘기존 회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2순위)’ 활동을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동아리 활동이 개인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림 3]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개인-공동체-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민간 중심 상향식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으로 문화공동체 형성 바람직

개별 동아리는 개인적 활동영역이므로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되며, 동아리 활동비 보조와 같은 직접 지원이 오히려 자생성을 저해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리 지원은 개별 동아리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동아리 활동기반 조성과 관련된 간접 지원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서 찾을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할지 말지의 여부는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라 할 수 있지만, 동아리 활동으로 활성화되는 공동체는 공공정책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리 지원정책은 문화공동체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실태와 욕구 조사에 기초하여 동아리 활동을 촉진하고 참여를 확대하되, 개별 동아리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 아니라, 동아리의 활동기반 구축 및 동아리 간 관계, 즉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에 기초하는 전략적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리 네트워크는 동아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공유과정을 통해 개별 동아리의 발전과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형성이 항상 긍정적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 대표자의 성향과 운영방식에 따라 권력집단화되거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에 의해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참여자들이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지속성을 갖기 힘든 경우가 많다. 또한,

상향식 네트워크 구축은 참여 동아리의 성향과 지역 특성에 따라 구축과정 및 성장단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기계적 네트워크에 그치기 쉽다.

따라서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은 동아리의 자발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역별 현황을 고려한 단계별 성장과정이 필요하다. 공공영역은 지역의 동아리들이 서로 만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며, 동아리 참여자들이 스스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자발적인 상향식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동아리 공공지원시스템 구축 등으로 ‘문화로 행복한 생활문화도시’ 조성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활성화는 서울시의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생활문화공동체는 문화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말한다.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감을 제고하고 생활문화예술생태계를 구축하며,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사회를 이루게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문화로 행복한 생활문화도시 조성>을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동아리 실태와 욕구조사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에 대한 전략적 지원체계 마련,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촉진 및 참여 확대,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활성화 등의 과제가 도출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동아리 지원의 원칙으로 자생성, 간접지원,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분담 등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자생적 기반 강화’, ‘동아리의 활동 환경 조성’, ‘공공지원시스템 구축’ 등 3대 추진방향 및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리의 자생성 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동아리가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스템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아리의 개별 활동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동아리와 동아리를 연결하는 생활문화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유도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매개자 양성, 공유플랫폼 구축, 서울시 생활문화축제 개최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동아리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동아리의 활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동아리 조사에 따르면 동아리 활동 활성화에는 공간 및 장비 등에 대한 요구가 핵심적이므로, 동아리 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 내 문화 인프라를 지속 발굴하고 공간 및 장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주민생활문화예술공간 지원,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사업 추진, ‘동아리발표주간’ 등 발표공간 확대, 장비공유창고 운영 등이 있다.

셋째, 동아리 자생성 기반 강화 및 활동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생활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밀착형 활동이기 때문에, 특히 지역적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 시는 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여건을 조성하고 자치구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5개 구를 엮는 생활문화축제 개최, 생활문화진흥조례 제정,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네트워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매개인력양성 기반구축 등의 역할이 그것이다. 자치구는 생활권 단위의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발굴 및 활동 지원을 수행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으로는 공간 및 장비 공유, 자치구 내 소규모 발표활동 등을 들 수 있다. 공공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자치구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진흥조례 제정, 생활문화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이 있다.



[그림 4]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추진계획